



세 형제 농장
부강 대표

장영훈

고객홍보팀



생명의 소중함과 만나는 하루하루!

농장을 방문할 때 으레 거쳐야 하는 소독터널. 돼지가 질병에 걸리면 농장주의 손해는 기본이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진다. 철통같은 차단방역과 엄격한 위생관리부터 질병의 예방은 시작된다.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형제농장도 당연히 소독터널을 거쳐 방문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생활, 일명 화이트칼라가 꿈이었던 장영훈 대표는 오랫동안 양계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을 둔 아들로써 좀 더 전문화된 축산경영을 위하여 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하였다. 축산인의 길을 선택한지 벌써 10년째. 돼지 500두로 양돈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5,500두에 이른 성공한 30대 축산경영인이다.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수상이 이번에 무려 세 번째라는 형제농장의 장영훈 대표를 만나 그의 축산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06:30 형제농장 10년 경영

이른 아침부터 농장은 분주하다. 출근하자마자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육성사 등을 순회한 장영훈 대표는 각 파트별 사양관리와 주요 업무를 파악하여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7명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양돈전문화 농장에서 1년여 현장경험을 쌓으며 그만의 축산 노하우를 터득한 그는 10년 동안의 농장경영으로 지금의 형제농장을 이루었다.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장 대표는 직원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게 큰 장점이라고 농장의 분위기를 설명한다.



16:00 직원의 복지가 우선이다

형제농장에도 큰 시련이 있었다. 2014년 누전으로 갑작스럽게 돈사에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육성사 1동, 자돈사 2동에 불이나 애지중지 내 새끼처럼 키우던 돼지들을 잃었을 때 장영훈 대표는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이런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지인들과 도원진생원 영농조합 조합원들의 격려와 위로 덕분이었다. 그의 농장 직원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다. 경영자로서의 눈높이와 직원들의 눈높이를 맞추며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그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직원들의 복지에 부단히 노력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양돈축산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일에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엔 모든 사람이 나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소중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꿈은 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 그에게 10년의 양돈사업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누구에게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양돈농장의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장 대표는 여전히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



12:00 농장의 악취는 생균제로 잡아라

유산균 발효사료인 생균제는 100% 사료에 첨가하여 돼지농장만의 독특한 악취를 잡았다. 분만사는 모돈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두운 조명과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새끼돼지의 생명의 소중함과 만나는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이다. 더운 여름 날씨에 돼지들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돈사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분만사의 온도를 낮춰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에어컨은 내구성이 약해 물순환 방식의 쿨링패드를 설치하여 돈사의 더위를 식혀주는 반면 젓먹이 새끼돼지의 사육온도는 40도를 유지해 주고 어미 뱃속에 있을 때처럼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 돈사의 쾌적한 환경을 지켜준다.

